

## 2025년 6월 3주차 각 지역 소식



### 🌐 마닐라

- ✔ 일로일로 국제공항 확장으로 더 많은 항공사 유치 중
- ✔ 공항 전자 입국 심사대 E-GATES 설치 위해 13.5 억페소(약 337 억원) 승인, 마닐라공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
- ✔ 최저임금 200 페소 인상안 상원에서 거절, 하원에 100 페소로 제안

### 🌐 싱가포르

- ✔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싱가포르 생산공장 가동 앞두고 대규모 채용 돌입. 한국반도체 엔지니어 인재 유출 위기
- ✔ 동남아 슈퍼앱 '그랩페이', 싱가포르에서 비트코인으로 충전

### 🌐 자카르타

- ✔ 인니, EU와 이달 내 FTA 체결, 3~4년 내 인니발 수출물량 50% 이상 증가 예상, 미국과 관세협상 와중 수출 다변화 현실화
- ✔ 수요 부진으로 자동차 판매 15% 급감, 신차 구매력 약화 주요원인, 기존 일본 메이커 현대.기아차 판매량 약세 속 중국전기차 메이커 약진중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공동특별경제구역 공식출범.조호르 남부지역.2 만개 일자리창출

✔말레이시아해운 단일창구시스템 확대.해운물류절차 디지털플랫폼 포트클랑, 페낭등 주요항만 확장 적용.향후 동말레이시아 사바와 사라왁도 포함예정.통관절차 간소화,화물처리능력 향상,동해안철도 연계 물류망확장,국제경쟁력 강화

✔그레이터 쿠알라룸푸르 물류창고확장.현재 5,530 만평방피트.27 년까지 1,130 만 추가조성,클랑, 샤알람, 조호르, 페낭지역 창고 투자 수요증가

## 🌐홍콩

✔존리 행정장관,홍콩달러-美 달러 페그제 변경계획 없어,1983 년 도입 후 유지, 최근 中자본 유입으로 강세 지속

✔홍콩국제공항 제 2 터미널 출발홀 26 년 3 월개장, 15 개 항공사 입주

✔HK 익스프레스, 8 월 1 일부로 홍콩~말레이시아 수방 직항노선 신설, 페낭 이후 두 번째 말레이시아행

## 🌐심천

✔화웨이,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11%로 '압도적' 1 위 전망

✔리튬배터리/자석/희토류 수출 세관검사 강화, HS CODE 84/85/90 으로 시작되는 제품 중점 검사

## 🌐샤먼

✔롤루레몬,1 분기 중국매출 22% 증가...매장 확대 가속

## 🌐불산

✔틱톡,영국에 2600 억 대규모투자

## 🌐상해

✔中,독일 제치고,세계 4 대 IP(지식재산)판매시장으로 부상

✔中,5 월 신에너지차 판매 102.7 만대,28.9% 증가

✔딥시크 핵심임원,전격 퇴사 후 창업..AI 에이전트시장 정조준

✔스타벅스,中 논커피(Non coffee)시장 공략.. 5 위안 가격인하

✔BYD,일본,유럽 공략가속..글로벌 전기차 강자부상

## 🌐광저우

✔하이난 상업항공우주회의 6.6(금) 홍콩에서 개최, 하이난과 홍콩간 로켓·위성·데이터 체인 및 항공우주 관광분야 협력방안 논의

## 🌐청도

✔5월까지 청도 장난감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 🌐천진

✔4월까지 번시 지역 아이스 와인,인삼주,식용식물성 기름 등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 🌐태국

✔캄보디아,국경 분쟁 태국영화·드라마 금지령...경계강화

✔필로폰 3 천 300 명 투약분유통한 40 대태국서 송환...구속 송치

✔백석대,태국 치앙라이시와 교육·기술·문화협력 협약

✔한국 프리미엄술밥 전문브랜드 '술술',센트럴월드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매장 오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 개 외식기업과 '태국국제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 🌐동경

✔일본은행, 3 회연속 금리동결 전망

✔쌀값 급등에 정부 비축미 방출 이어 정부 의무수입 쌀 10 만톤 조기도입 추진

## 🌐하노이

✔두산에너지빌리티,베트남서 9000 억원규모 발전소건설 계약

✔하나마이크론,베트남법인 인프라증설 '박차'

✔이녹스에코엠,베트남에 실리콘음극재 공장 완공

✔베트남,자동차판매 호조...5 월 2.9 만대 전년동기비 13%↑

✔베트남 신생 항공사 썬꾸옥항공, 운송허가 취득

✔베트남, 브릭스(BRICS)'파트너 국가'지위획득

## 🌐호치민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판매자 세금 원천징수 의무화...내달시행

✔베트남국회,행정구역 통폐합안 가결...성급 지자체 63→34 개

✔이녹스에코엠,베트남 실리콘음극재 공장완공...연산 1200 톤 규모

## 🌐대만

✔YM INITIATIVE 광양에서 기룡으로 향하던 중 미확인 부유물과 충돌, 해상에서 운항중단, 중국 원저우에 입항 후 수리 중, 수리상황에 따라 운항재개 혹은 선박 투입하여 선적되어있는 컨테이너 운반여부 결정, YM INITIATIVE 한 항차 운항취소 결정, 한국 향 스페이스 상황악화, 이른 부킹 필요

## ▶주간 시황 요약

**Container** 단기 공급 집중 현실화, 美 서안 운임 급락

**Bulker** 철광석 투자심리 개선 및 남미 곡물 수출 성수기 진입으로 운임상승

### ▶Container

	6/13	6/6	증감
SCFI	<b>2088.24</b>	2240.35	▼ 152.11
美서안	<b>4,120</b>	5,606	▼ 1,486
美동안	<b>6,745</b>	6,939	▼ 194
유럽	<b>1,844</b>	1,667	▲ 177
지중해	<b>3,190</b>	3,302	▼ 112
동남아	<b>455</b>	446	▲ 9
중동	<b>2,083</b>	1,929	▲ 154
호주	<b>745</b>	686	▲ 59
남미	<b>4,724</b>	3,959	▲ 765
日서안	<b>315</b>	315	-
日동안	<b>320</b>	320	-
한국	<b>136</b>	138	▼ 2
동서Africa	<b>4,382</b>	4,230	▲ 152
남Africa	<b>2,397</b>	2,301	▲ 96

\*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 종합 SCFI 6주 만에 하락 전환, 미서부 항로 급락

1. 5월 미중 관세 유예 합의 후 선사들의 미서부항로 신규 진출 및 선박 투입 집중, 단기 공급 급증으로 선사 간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하며 미서부 운임 급락
2. 미국은 2주내 관세협상 관련 최후 통첩을 예고했으며美中 협상은 큰틀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 무역갈등이 진정 국면에 진입할 경우 운임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
3. 5월中차이신제조업 PMI는 48.3으로 32개월만에 최저를 기록, 관세 유예에도 中제조업은 여전히 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활력 저하는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

## 미주항로 美 서안 8주 만에 급락, 6월 선적 예약 약세 전환

1. 단기 공급 집중에 따른 선사 간 경쟁이 극심해진 반면 수요가 공급 증가량을 밀돌며 6월초 선적 예약 약세 전환, 선사들은 GRI 계획을 철회하며 서안 운임은 전주대비 26.5% 하락
2. 최근 북미 운임 호조와 함께 대형사 및 중소선사(CUL,TSL 등)의 사업 확대가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급 증가 영향 현실화, 수급불균형 심화로 단기 약세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3. 美소매협회는 7월 수입 물동량을 213만 TEU로 전망하며 전월 전망 대비 20.3% 상향했으나 전년대비로는 8.2% 하락 예상, 9월에도 전년대비 21.6% 하락 예상되는 등 관세 인상이 미국 현지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유럽항로 4주 연속 상승, 강세 지속 여부는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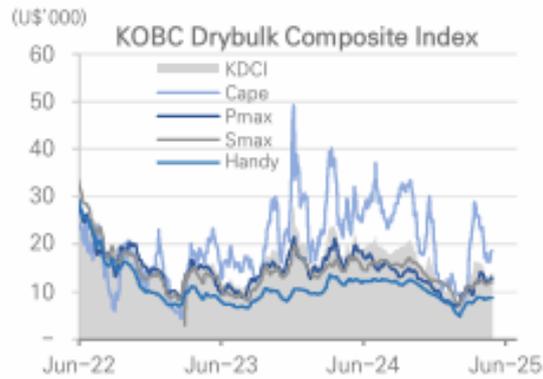
1. 성수기 진입, 공급 조정 그리고 불확실성에 따른 수급 긴장감으로 상승세. 단 금주 미서부 운임 급락은 유럽 선복 부족에 대한 심리적 우려를 완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기 상승세 후 약세 전환 가능성있음
2. 유럽항로에 배치되었던 30여척이 미주로 이동 중이며, 7월까지 추가 공급 축소가 계획된 것으로 파악. 하지만 금주 북미항로 운임 방향성 변화는 향후 유럽항로 운영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 상황 고려 시 올 성수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연근해/기타 동남아 5주 연속 상승, 중동지역 긴장감 고조

1. 호르무즈해협 긴장감 고조, 전면 봉쇄 사례는 아직 없으나 문제 발생 시, 오만/홍해 지역 등의 대체항이 부각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역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 예상

## ▶ Bulker

		6/13	6/5	증감
KDCI		17,326	14,951	▲ 2,375
Cape	평균	31,731	25,780	▲ 5,951
	F/H	52,125	39,750	▲ 12,375
	T/A	35,500	19,300	▲ 16,200
	Pac RV	26,800	24,375	▲ 2,425
P'max	평균	11,848	9,932	▲ 1,916
	F/H	17,593	15,182	▲ 2,411
	T/A	10,789	8,498	▲ 2,291
	Pac RV	10,275	8,549	▲ 1,726
S'max	평균	11,335	11,218	▲ 117
	F/H	15,692	15,184	▲ 508
	T/A	15,217	14,112	▲ 1,105
	Pac RV	10,366	10,357	▲ 9



### Cape 美·中 무역 긴장 완화 기대, 그러나 건설 수요는 부진

1. 중국 철광석 소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美·中 무역 긴장 완화로 인한 투자심리 개선, 중국 내 태풍으로 인한 항만 폐쇄, 항만 재고 감소에 따른 재입고 수요 증가 기대감 등으로 인해 상승세
2. 6/11(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美·中 고위급 회담 후 양국은 협상 재개 프레임워크에 합의. 이는 무역 긴장 완화 신호로 해석되어 철광석 시장에 긍정적인 심리 유입
3. 호주 및 브라질 주요 광산업체의 회계연도 마감(6월)이 임박함에 따라 연간 출하 목표 달성을 위해 6월 하순에 철광석 선적이 집중될 것이라는 기대가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
4. 중국 남부에 태풍 Wutip 이 상륙하면서 Zhangjiang, Fangcheng 항만이 폐쇄되어 지역 내 정체 및 혼잡 우려가 커지며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
5. 지난 달 철광석 수입량 감소, 일부 호주 광산업체의 3~4월 출하 지연 등으로 인해 6/6일 기준 중국 항만의 철광석 재고는 1억 4,400만 톤으로 연초의 1억 5,600만 톤 대비 7.7% 감소.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략적 재입고 수요 가능성 상존
6. 그러나 6월 이후 중국 내 고온·우기와 맞물려 건설 수요는 계속 부진한 상태인 데다, 제조업 및 수출 둔화가 지속되며 중국 내 철광석 수요는 둔화되고 있어 운임 상승을 제한

## Panamax 남미 곡물 수출 성수기 돌입

1. 남미 곡물 수출 성수기 시작으로 인한 남미 곡물 수요 증가, 최근 몇 주간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가용 선박 부족으로 상승세
2. Anec 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브라질의 대두, 옥수수 수출은 전주 대비 11.2%, 옥수수는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본격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 호조로 수확량이 예상을 상회
3. 5 월 중국의 대두 수입은 브라질산 물량 확보와 통관 속도 개선, 자국 내 대두박 수급 우려에 따른 수요 확대 영향으로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92 만 톤을 기록해 역대급 월간 실적을 보였고 곡물 전체 수입 역시 이와 함께 1,660 만 톤으로 급증
4. 중국의 석탄 및 갈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75% 감소한 3,604 만 톤을 기록하며 3 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내수 석탄 가격 하락과 생산량 증가로 인한 수입탄과의 가격 격차 축소,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수입보다 국내 계약 우선 구매를 지시한 영향, 강우 증가에 따른 수력 발전 확대 전망 등이 주요 원인
5. 브라질,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 호조세가 이어져 상승세 전망

## Supramax 대서양의 반전

1. 남미를 중심으로 곡물 화물의 견조한 유입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수역의 공급 우위 기조가 이를 상쇄하며 보합세
2. 대서양은 남미와 지중해에서 곡물 화물이 견조하게 유입되면서 그간 화주 주도 흐름이었던 분위기가 선주 주도 흐름으로 반전되며 상승세
3. 태평양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역에서 신규 화물이 부족하여 공급 우위의 기조가 지속되며 하락세 지속
4. 대서양은 남미 곡물 수출 증가로 상승세를 유지 할 것이나, 태평양은 석탄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인해 하락 내지는 약보합세 전망

상기 작성된 자료의 중 일부는 해양진흥공사의 공식 패널로 참여 된 기업으로써 해당 부서의 승인 후 배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원 상무 / Kai Kim / Managing Director



07642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95 (내발산동, 맥익스프레스 빌딩)

Tel : +82-2-2661-3401(ext.704)

Fax : +82-2-2661-3403

Mobile : +82-10-5139-9985

E-mail : [kai@imcexpress.co.kr](mailto:kai@imcexpress.co.kr)

URL : [www.mcexpress.co.kr](http://www.mcexpress.co.kr)